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조성 이념

윤두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City Primary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Two-One Yoon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Administrative City

요약 도시는 단순한 형태의 유희가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한 각종 외적 변수와 치열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물질화되어 빛이
진 것이다. 도시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사유를 이해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도시를 어떻
게 만들 것 인가에 직면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등 20세기 전후에
흐르는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철학적 함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아테네 현장, 마추픽추 현장, 메가리드 현장, 뉴어버니즘
현장 등의 도시계획현장과 비교함으로써 도시조성 이념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도시는 복잡한 사회경제 인문환
경 속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보편적 기조 아래 “영역, 관계”의 틀에 맞추어 협력적 사고로 합의되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건축, 시설물 차원에서 사례고찰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초기부터 21세기의 조성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구대상지로 하여 20세기 전후의 사회적 현상과 도시계획현장의 비교분석을 통
해 합의된 도시조성이념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변화와 발전에 따라 도시조성이념도 향후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Abstract Cities are not built simply for amusement, but to tackle external factors faced by societies and built based
on theoretical arguments. In order to construct a city and develop it, we have to understand the grounds and reasons
for doing so, and have to think through how to build a city that corresponds with what contemporary societies are
looking for.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ories and compares these
implications with the Urban Charters, in order to propose processes of change for the philosophy of city construc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ities are based on ideas that correspond to the common values of the era, within a
frame of areas and relationships, under complicated sociological, economical and humanities environments. The results
are supported through case studies of urban areas,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establishes philosophies of city constru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charters
with the sociological phenomena in the 20th century, and because its research target is the Administrative City to
which the philosophy of the 21st century's has been appl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We have to take
different points of view corresponding to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cities.

Keywords :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Area, City Primary Principles, Common Values, Relationship, Urban Planning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백지에는 글을 쓸 수 없다. 모든 글쓰기에는 관습과

문화가 전제되어 있으며[1], 도면에 선을 그리기 전부터
우리는 관습과 잠재의식에 의해 도시에 대한 모습을 그
리고 있다. 시대를 보는 관점 역시 상대적인 것이며 몇
권의 이론서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서술할 수는 없지만

*Corresponding Author : Two-One Yoon(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Administrative City)

Tel: +82-44-865-9540 email: zuzic@happycity2030.or.kr

Received July 28, 2016

Revised (1st August 5, 2016, 2n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우리 본성은 지적 사유가 가능하고 도시내부에 살기 때문에 도시를 이야기 할 수 있다[2]. 또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와 같이 도시를 조성하는 내외부적 사념들이 연장되듯이 연결되어 조성된다[3].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걸친 함축된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본적 준칙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수많은 개념의 변화와 변용 속에서 당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조성이론을 정리하여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시가 가지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개별적으로 보고 연구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21세기에 들어선 조성이념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규모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 할 수 있다[4].

한편 신도시는 입지선정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정체성과 공간 형태적 상징성이 강조되기 마련이고 그 당시의 사회이념이 가장 잘 반영된다[5].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설초기부터 21세기의 도시이념을 계획사조로 담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가 포용하고 있는 도시조성이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시조성이념 속에서 도시의 기조에 대한 지속적 물음에 대한 해답과 정체성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통제와 무작위 선별과정을 통하여 변수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는 달리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실체와 과정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지향한다. 이는 피상적인 유형, 추세,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사례연구(Case Study)는 다양한 사회과학 방법 중의 한가지이다.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또는 ‘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실생활에서 동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 오늘날의 전반적인 사조와 철학적 함의요소의 도출을 위해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구

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등 20세기 전후에 흐르는 이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도출된 함의요소를 아테네 현장, 마추픽추 현장, 메가리드 현장, 뉴어버니즘 현장 등 도시계획 현장과 비교하여 변화하는 도시조성 이념을 정리하였다. 셋째, 이러한 도시조성 이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적용 사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시하였다.

2. 함의요소 도출 : 영역과 관계

역사는 사회·경제·문화적 흐름의 구조 속에서 차이가 인정되면서 영역이 생긴다. 이에 따른 이념이 등장하고 새로운 물결에 반응하여 변화하게 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는 혁명 정신을 배경으로 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계몽정신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적·이상적·인본주의적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순수했던 고대 건축물, 그리스문화 등이 재발견되었고 옛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신고전주의가 등장한다. 도시의 건축 양식도 그리스 시대의 순수한 이성을 재현하면서 유형의 조합이 도시적 구성으로 이어진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자동차의 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급격한 도시성장파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때부터 현대적 도시성이 새로운 시대와 유형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전의 신고전주의 시대의 질서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6].

근대의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를 통해 전통적인 패턴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도시를 접근하게 된 것이다[7]. 시대적 배경에 맞는 모더니즘적 사고가 주를 이루고 기능적 요소를 우세하게 생각하고 복잡한 장식들을 배제하는 등 끊임없는 진보를 시도하게 되었다. 모더니즘적인 사고는 효율성에 치중하고 도시공간에서 사각형과 직선을 통해 단기간 내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개체간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관계적 정립도 명확히 하여야 했다.

이와 함께 이성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는 주체와 객체의 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인류 공통에게 나타나는 심층구조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와 행동양식의 이면에는 특정한 법칙과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개별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들 간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그 관계 속 배열에 의해 인간에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주의는 언어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문화인류학과 관계가 있다. 소쉬르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의식적인 부분보다는 무의식적인 하부구조에 초점을 두어 언어 요소 각각의 독립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간의 관계에 내재된 법칙을 찾아 일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구조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고유 언어를 초월한 근본적 형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학문으로, 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드(Id, 욕망), 자아(Ego, 이성적 사고), 초자아(Superego, 이드 제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영역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인간심리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뒤르켐(Durkheim)의 대도시와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발전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 이전시기와 다른 대규모 도시의 생활과 문화를 만들어지는 공통적 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대규모 자본화가 이루어지면 인류는 공통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등의 공통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레비 스트로스(Levi Strauss)의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부족의 생활의 혼인과 종교의식체계 등이 유럽의 서구 세계와도 비슷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문명화된 사회와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반대로 서구 국가들의 고도화된 문명 안에도 원시부족과 같은 본능적 구조와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주의와 이와 연관된 언어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에서는 초월적인 공동적 영역은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개별적 차이가 보이는 영역과 이에 대한 분명한 관계성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러한 모더니즘과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주장이 새롭게 나타났다. 후기 구조주의란 구조주의로는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을 사유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을 의미한다. 즉, 서로 얽혀 있는 구조들 밑에서 어떠한 힘으로 인해 그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구조주의가 중시하는 근본 구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많기 때문이다.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구조주의로는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을 사유하고자 등장하였다.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적 사고를 인정하는 한편 단순히 외적 구조만을 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경험, 욕망과 같은 구조도 함께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또한 탈 중심, 경계해체, 의미의 비결정성 및 불확실성과 같은 주요 특성을 공유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연결된다. 영역적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고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더니즘과 구조주의-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새롭게 비판된다. 모더니즘적 도시의 경우 몰개성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도시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아직 파악되지 못하였다. 탈산업주의, 포스트포드주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모던적 경향에 있는 개념이라고 비판받았다[8]. 또한 인간적 삶의 논리에서 모색된 것은 인정받지만 도시제도와 공간에서의 모든 변화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전히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가 혼재되어 있으며 둘 간의 관계는 영역의 차이와 같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관계가 성립된다. 인류는 영역적 차이와 이에 따른 관계를 만들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조 속에서 지적 사유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잠재의식 속의 욕망으로 도시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순수한 이성애에 의해 얻어지는 최고의 개념, 즉 ‘이념’이 도시에 담기게 되며 이는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그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영역과 관계적 변화에 따라 도시를 내외형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도시의 형성이 시간의 축적이나 필연성 없이 특정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더라도 사실상 누적된 시간이 새로운 도시 내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념이 형성하는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대표하고 다음 세대로 전환되며 도시에서 나타난다[4]. 정치·철학 패러다임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논하여 도시를 조성하는 현대도시 이면의 패러다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도시계획현장에서 나타난 도시조성이념

도시조성이념을 어느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시퀀스(Sequence)적으로 연쇄적인 비교를 통한 전개과정의 고찰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사회 변화 속 이념도 같은 변화의 전개과정을 지니며 다각화된 시각에서의 다양한 공간 활용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체제 질서의 내용과 질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이러한 현상과 그 현상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담론은 보편성과 보편성에 대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변화과정은 20세기 전후의 아테네 현장, 마추픽추 현장, 메가리드 현장, 뉴어바니즘 현장 등에 잘 나타난다. 현장은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 또는 규범으로서의 기본적인 준칙을 말하며, 법률과 달리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의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보다도 강한 사회적 호소력을 지닌다[9]. 이에 따라 도시계획현장은 모더니즘(구조주의 등)~포스트모더니즘(후기구조주의)~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영역과 차이 속에서 관계의 정리가 요구된다.

우선 아테네현장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와 황폐화된 도시환경 속에서 고립된 영역성과 명확한 관계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20세기 초기 모더니

즘적 사고와 구조주의 등에서 보이는 영역의 분리와 강력한 관계가 나타나며, 그 이념은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 기능의 분리, 인간과 환경중심의 공간 구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도시기능과 자연기능의 강력한 구분, 외연적 확산 방지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한편 각 내부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층화된 건축물의 자체적 관계성은 강화하고 있지만 타 영역과의 관계성은 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계획에서도 나타나는데 교차로를 입체화함으로써 같은 경로나 수단의 영역성은 차량 통행 중심으로 고립시키고 보행과는 분리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기능을 분리하고 도로 폭은 넓혀 생활공간을 분리한다. 도시 관리에 있어 계획전문가의 일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과학적 계획을 추구하고 공익을 사익에 우선하여 계획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후 등장한 마추픽추현장은 20세기말 현장과의 중간적 성격이 강하며 전체로의 해체된 영역과 관계의 통합적 관점에서 추구한다. 즉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영향과 함께 전체와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역성과 비결정성에 의한 관계의 해체 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은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고 자연과의

Table 1. The changes of urban planning charter

Division	Athens charter (1933)	MachuPicchu Charter (1977)	Megaride Charter (1994)	New Urbanism Charter (1996)
Aim	Restore the urban environment degradation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olve problems of modern urban planning, Stimulating professionalism of planners	Explore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Switch to the development for the traditional lifestyle
Land Utilization	Separate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tegrate with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Give the city vitality, Induce proliferation of suburbs	Mixing between multiple applications
Nature & Environment	Conservation of ecosystems	Seek solutions for environmental problems in urban planning	Maintain a balance between nature and the urban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History & Heritage	Protect of cultural heritages and architectures	Protect cultural objects as well	The cultural establishment of change and recover	Emphasis on historical styles and forms
City Management	The pursuit of scientific planning by experts	Integrated and planned management of cities and surrounding areas	Reinforcement of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Pursuing qualitative improvement of urban design
Architecture & Facility	User-centric architecture, Securing of public facilities and green spaces through high rises	Emphasis on harmony with the whole space	Emphasis on the recovery of existing buildings and functional replacement	Securing of sufficient green tract of land, Pursuing qualitative improvement of buildings
Transportation & Ambulation	The three-dimensional intersection, Expansion of the road, Distinction Road features	Criticism of the road extension, Emphasis on linkage between transportation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public transport system, Guarantee of freedom for the movement of the individual, Give priority to pedestrians and bicycles	Create environmentally friendly footpaths, Secure connectivity for driveway and pedestrian space
Community	Consider public interest first	Emphasis on the communications between inhabitants	Respect for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communities	Establish a base for the local community

Area : Separation and Isolation→Disintegrated into the Whole→Mixed area

Relationship : A clear relationship→Integrated relationship→Strengthening of relational solidarity

관계에서는 환경오염문제의 계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계성은 도로확장을 비판하고 교통수단간 연계를 강조하며 공동체 확보에 있어서도 영역의 조화와 관계의 해체를 통한 소통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메가리드현장과 뉴어버니즘에서는 영역의 혼합과 관계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는 아테네현장의 영역 분리와 단일 객체 또는 내부로의 강력한 관계성과는 다르며 마추픽추현장의 전체에 대한 해체된 영역성과 통합적 관계와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은 영역혼합을 위해 교외로의 확산을 관용적으로 허용하고 복합적인 용도의 혼합을 유도하였다. 또한 집중된 공원보다는 생활권 내에서 자유로운 연결과 접속이 가능한 기능성 녹지 또는 공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영역의 분리보다는 혼합과 관계의 결속에 가치를 두었으며, 교통 측면에서는 자동차 목적 통행으로 일부에 집중되었던 교통체계와 단일수단에서 대중교통·보행·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의 다변화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장기간의 통행시간이 소비되는 기능분리의 도시를 지양하고 생활권 내에서 도보, 자전거 등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가로 중심의 도시계획에 따른 위계별 분산기능과 우연적 만남을 통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거대 인프라의 입체적 분리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혼합적 계획을 추구한다. 요약하면 영역은 ‘분리에서 혼합을 강조’하고 관계는 ‘명확성에서 강한 관계적 결속’을 강조하였다.

4. 도시조성이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구현사례

앞서 도시계획현장과 사상의 기초 흐름을 영역과 관계 측면에서 도시조성이념의 변화와 차이를 설명하였다. 21세기의 도시는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담고 있을까? 본 연구는 도시조성이념의 설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계획사례로 나타내고자 한다. 증명은 사례연구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연구로 현상과 정황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9].

사례연구는 ① 연구명제 ② 분석단위(도시, 건축, 시설) 설정 ③ 자료와 명제의 연결 그리고 해석으로 진행하였다. 단일연구사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적 요

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단일연구사례는 기존의 이론 검증 또는 대표성이 있는 사례를 연구할 때 사용된다.

연구명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도시조성이념인 ‘영역의 혼합’과 ‘강한 관계적 결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분석단위는 복합분석단위로 계획법위인 ‘도시’, ‘건축’, ‘시설’차원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자료는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공공디자인, 건축심의자료 등 사례연구 조사의 한 분류인 문헌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자료와 명제의 연결은 앞에서 설명한 명제인 ‘영역’의 ‘혼합’의 이념을 복합분석단위로 접근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공간구조는 환상(環狀)형태를 갖는다. 강한 도심을 통해 기능을 집중시키는 기존 도시구조와는 다르게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중심에 녹지공간을 두고 대중교통중심축(Inner Ring)을 따라 기능을 분산시켰다. 강력한 중심성은 사라졌지만 기능을 분산하여 영역을 혼합하고 관계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환상형 도로를 따라 주요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영역적으로 혼합하였다. 생활권 중심에 다양한 공공편의기능을 혼합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고 상업업무, 주거기능을 배치하였다. 20세기 초 도시의 주거와 산업기능 분리, 내부지향적인 계획에서 나타나는 관계와는 다른 도시공간구조를 보인다.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대중교통중심도로는 총 6차선이지만 통과교통을 우선시 하지 않고 생활가로의 기능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차선의 도로에 주거용지를 배치할 경우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녹지 설치와 방음벽을 계획한다. 이는 도시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생활권을 단절하여 관계를 구분한다. 행정중심복합 도시는 대중교통중심도로를 중심으로 영역을 혼합하고 관계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많은 협의를 통해 저감 대안을 마련하여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주거용지 전면에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하여 도로소음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비주거와 주거의 영역을 혼합시켜 타 기능과의 관계적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단지중심의 내부지향적이고 빌딩중심의 도시계획을 지양하였다. 가로를 중심으로 우연한 만남을 위해 정연한 건축물을 계획하고 가로에 딱딱한 맹벽이 아닌 부드러운 입면이 접하도록 계획하였다. 전면공지

계획, 옹벽 지양, 담장설치 금지,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통해 공공영역과 개인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영역사이의 완충적인 공간을 계획하여 공공을 민간 내부에 끌어 들여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였다.

둘째, 건축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중교통중심도로의 상업업무용지를 중심으로 생활권 위계별로 6~8층 규모의 위요감을 갖는 가로벽(Urban wall)을 계획하였다. 가로벽에는 상업지역내에 주거용도를 허용하고 상업기능과 혼합을 유도하였다. 건축물 계획의 경우도 2층 이하의 저층부에 건축지정선 또는 아케이드 등을 적용하여 개별 건축물 디자인을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 다양성을 갖도록 하였다. 입면의 전개에 있어서 개별 건축물은 다르지만 디자인적 통일감을 가지는 강한 관계적 결속력을 지닌다. 정부세종청사는 건축적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된 혼합된 영역을 지닌다. 분리되었던 기관을 하나의 건축물에 혼합 배치하였다. 관계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옥상정원과 통로를 연결하였고 이를 위해 도로와 공공청사 등을 중복 결정하였다. 과거 관사중심형 계획과는 차이가 있으며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건축물과도 차이가 있다. 각 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 문화, 편익건축물을 혼합하였다. 주변에는 공원, 학교 등을 배치하고 각 기능별 관계성과 영역의 혼합을 강조하였다.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차별성을 추구하지만 주변과의 관계성을 우선시하여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공동주택용지 경우도 기존에 단지별로 분리되었던 시설을 혼합하고 관계적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2013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설계공모 사업부터 잘 나타난다. 단지 간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생활권 전체를 연결하였다. 단지내부에 집중되었던 주민공동시설을 가로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통합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여 단지 거주민만 이용하였던 시설을 단지 내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디자인 설계원칙은 절제된 디자인, 조화로운 디자인, 맥락적인 디자인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시설물의 색채와 디자인 계획은 영역의 혼합과 강한 관계적 결속이 나타난다. 색채는 녹색, 파랑 등의 기존 도시에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 사용했던 원색의 명확한 분리된 색채가 아닌 회색에 난색(暖

色)을 혼합한 워그레이(Warm gray) 또는 워다크그레이(Warm dark gray)를 기초색채로 사용하였다. 기존 도시에서는 분리되어 설치되었던 신호등, 안내판, 가로 시설물은 혼합하여 접촉부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보도육교, 입체교차로 등은 보도와 분리된 시설이 아닌 가로를 중심으로 한 혼합성을 중시하였다. 입체구조물 설치 시에는 판과 다른 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입체보행로로 계획하여 보행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4. 결론 : 조성이념의 과거, 현재, 미래

도시조성이념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도시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흐름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도시계획현장의 분석을 통해서 조성이념의 변화를 함의하였다.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20세기 초반과 중후반은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대에 따른 가치는 영역과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역적 관점은 ‘분리’에서 ‘혼합’으로 변화되고, 관계적 관점은 ‘명확한 관계성’에서 ‘관계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지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조성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도시에 잘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사례로 이러한 조성이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사례연구는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아직 연구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한계점도 동시에 지닌다[9]. 또한 단일 사례 분석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표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특수성과 일반성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성이념의 사유체계와 이에 따른 도시현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반부에서 말했듯이 그 시대를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현실과 계획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안, 지형, 자본 등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근대적인 이념이 고집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은 미래 지향적 이념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이념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현대적 시각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이다. 도시공간은 한번 조성되면 많은 자본과 노력이 들어가고 수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성이념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변화과정도 역사주의적으로 연결성이 있다기보다는 고고학적으로 불연속적이다[10]. 본 연구에서 주장한 조성이념도 향후 미래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으로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Min ji Kim,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Method by the Heterotopia Spacial Concept",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pp. 40-45, 2016.
- [2] Myeong Sik Kim, "Remarks on the Human Dwelling and the Life-world", SPACETIME Publishers, pp. 15-48, 2014.
- [3] Michel Foucault, "Space, Knowledge, and Power", Interview with Paul Rabinow, Skyline, pp. 208-264, 1982.
- [4] Choon Hee Lee, "A Study on the City Form According to the New Urban Planning Paradigm at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Entry Work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pp. 1-3, 2007.
- [5] Cheol Soo Kim, "A History of Urban Planning & Design", KIMOONDANG Publishers, pp. 379-410, 2009.
- [6] Yong Soon Jang, "Philosophical Adventure of Modernism Architecture(C)", MIMESIS Publishers, pp. 67-114, 2010.
- [7] Hedman, Richard, "Fundamentals of Urban Design", Trans. Seok Hwan Lee & Kim Min Soo & Dong Jin Kang & Jae Joon Lee & Se Yong Kim & Young Wan Kom, TARIM MUNHWASA Publishers, pp. 133-168, 2002.
- [8] Seing Paik Lee, "New Paradigm in Urban Studies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Postmodern Urban Theory of E. Soj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vol. 21, no. 03, pp. 93-101, 2010.
- [9]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4th ed.)", pp. 25-191, SAGE Publishers
- [10] Inha, Jung,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ontemporary Urban Theories and Discourse of Language",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12, no. 05, pp. 65-86, 2003.

윤 두 원(Two-One Yoon)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설계학 석사)
- 2011년 8월 :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 수료)
- 2006년 11월 ~ 2010년 12월 :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연구원

• 2011년 1월 ~ 현재 :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실장

<관심분야>

사회과학, 도시/지역개발